

데스크칼럼

박정렬

사회부 부국장 대우



전남광주가 지금처럼 주목을 받았을때가 있었을까.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국토가 재편되면서 한반도의 남쪽 끝 변방으로 치부되는데 그치지 않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호남이 소비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우리 지역에 짓겠다고 하면서 전환점을 찍게 됐다.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을 각각 2기씩, 총 800조원 규모의 4기를 서남권에 지을 계획이 공식화 돼 호남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수도권 편중이 가져온 국가 성장의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정확히 부합되는 곳이 전남광주라 할 수 있다. 농·어업 중심 구조에 머물러 산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젊은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50년 넘게 고착화가 되면서 소멸을 걱정하는 땅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우

한반도의 끝이 아닌 세계로 향하는 시작점

리 지역이 기회의 장이 된 것이다. 산업화가 뒤쳐지다 보니 그만큼 새롭게 개발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조건도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에도 남겨진 땅이라는 조건이 장점으로 작용하게 됐다. 화순 동북댐, 주암댐,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등이 용수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국 최대 규모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야 하는 RE100 실현에도 유리한 상황이다. 우리 스스로도 낙후와 변방으로 낙담했지만 새로운 기회와 시작의 에너지를 품고 있었던 곳이 전남광주였던 것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다. 한반도 지도를 놓고 우리는 항상 전남광주를 아래, 남쪽의 끝으로 생각했다. 수도권 중심 사고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인식을 지배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드넓은 태평양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남광주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다. 육지의 끝이 아닌 바다에서 가장 먼저 전 세계와 만나는 시작점이다. 해상 물류와 국제교류의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서도 전남광주는 시작점이자 중심지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대규모 태양광, 그린수소 등 수년간 지방정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왔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광주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남해안을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추진하는 것에 남해안 관광벨트와 우주항공, 해상풍력, 해양바이오, 블루카본, 해양치유 등이 있다는 것은 수도권 중심 국가 구조를 해양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산업과 과정 이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언제나 호남은 역사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항은 근대 개항 이후 서남권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고, 더 거슬러 오르면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의 주무대가 서남권이라는 점 등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전남광주가 한반도의 끝이 아닌 세계를 향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농수산 중심 지역에서 해양·에너지·첨단산업 중심 지역으로 도약,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축, 글로벌 네트워크를 잇는 대한민국 해양 허브로서의 역할 등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반도체는 이러한 전환에 불을 당기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정치적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320만 통합특별시민의 열원을 하나로 모으고,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기고

정용인

강진소방서장



따뜻한 날씨와 함께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산행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좋은 여가활동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월출산, 덕룡산 등 강진 인근 산악지역은 아름다운 경관만큼 암릉과 급경사 구간도 많아 등산객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최근 강진군 성전면 월출산 일원에서는 등산 중이던 요구조자가 약 10m 아래로 추락해 자력 하산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다. 강진소방서는 구조대와 구급대, 소방항공대가 협력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산행 중 발목을 접질려 거동이 불가능해진 등산객이 발생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가 이뤄지기도 했다. 발목 접질림은 산행 중 흔한 부상으로 여겨지지만, 산악지역에서는 단순한 보행 장애가 곧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산악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산악지역은 도로와 달리 위치 확인이 어렵고, 기상 변화와 지형 여건에 따라 구조대 접근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위치 파악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강진소방서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덕룡산

사고 없는 산행, 기분을 지키는 것부터

일원 주요 등산로와 암릉 구간을 대상으로 위험지역 발굴과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에서는 암릉 구간 안전성, 급경사지, 소석문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추락 위험지점, 등산로 이탈 가능 지점, 미끄럼 우려 지역 등을 중점 확인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산악 인명구조훈련을 진행하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산악위험에서의 요구조자 위치 확인, 구조대 접근 경로 선정, 응급처치 및 이송 절차, 관계기관 간 현장 정보 공유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는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 시간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비 활동이다. 점검과 훈련 결과는 구조대원들과 공유해 출동 경로와 구조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위험지점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요청과 산행 안전수칙 홍보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미리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산악사고 예방의 시작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다. 산행 전에는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물, 간식, 여벌 옷, 보조배터리 등 기본 물품을 준비하고, 해가 지기 전 하산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일정을 세워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산행 코스와 하산 예정 시간을 미리 알려두는 습관도 위급상황 발생 시 큰 도움이 된다.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구역이나 출입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며, 음주 산행은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암릉이나 낙석 위험 구간에서는 주변을 살펴며 천천히 이동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무리하게 절벽이나 경사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산악위험지점, 국가지점번호, 주변 지형지물 등을 활용해 현재 위치를 알리면 구조대의 신속한 접근에 큰 도움이 된다. 휴대전화 GPS 기능을 켜두고, 불필요한 사용은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서 체온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안전한 산행은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산행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산행 중 한 번 더 조심하는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 즐거운 산행은 안전이 전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주요 산악지역 위험요인 점검과 산악 인명구조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강진소방서도 군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이어가겠다.

취재수첩

리플렛이 사라진 자리

정재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최근 찾은 공연장에서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로비 한쪽을 가득 채우던 공연 리플렛과 프로그램북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전시장도 마찬가지다. 대신 벽면에는 QR코드가 붙고, 작품 설명과 출연진 소개, 공연 순서는 휴대전화 화면으로 옮겨졌다. 공연장과 미술관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중이 없다'는 공연장'을 내걸고 공연 홍보물 인쇄를 최소화하고 있다. 전통문화관 역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 배너를 중심으로 공연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문화예술 현장에 자연

스레게 스며든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 번 보고 버려지는 전단지과 소책자를 무심히 찢어내는 방식은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연 한 편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수백, 수천 장의 홍보물이 만들어지고, 공연이 끝난 뒤 상당수는 폐기된다. 종이와 잉크, 운송과 보관에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인쇄물 감축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예술계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 디지털 전환은 정보 전달의 속도와 범위를 넓힌다.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즉시 수정할 수 있고, 온라인 링크 하나로 공연의 배경과 출연진 이력, 작품 해설, 관련 영상까지 연결할 수 있다. 외국인 관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종이책자보다 훨씬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한정적인 인쇄물에는 모두 어려운 정보를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안내는 관람 경험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쇄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마냥 '친환경'이

라는 말로만 낱길 수는 없다. 관람객 입장에서 공연장과 전시장은 정보를 얻는 장소이기 전에, 예술을 천천히 느끼고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손에 쥘 리플렛 한 장은 공연의 줄거리와 음악, 작품의 맥락을 따라가게 하고 관람 이후에도 그날의 감정을 다시 불러내는 작은 기록이 된다. 모든 관객이 스마트폰과 QR코드를 익숙한 것도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 편리함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큰 글자와 점자를 넣은 전단을 별도로 비치하겠다고 밝힌 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인쇄물을 줄이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는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종이 없는 공연장이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같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문화예술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인쇄물을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안내할 것인가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예술에 닿게 하는 것. 종이는 줄이되 문화예술을 향한 안내는 더 깊고 넓게 남기는 일. 그것이 문화예술 현장이 만들어야 할 지속가능한 관람 환경일 것이다.

사설

서남권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최선 다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최대 과제인 전문인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800조원 규모의 투자시를 밝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전남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에 반도체 계약 학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다. 현재 서울대가 이들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국립대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또 서울대 클린룸을 활용한 실습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논의 중이며 기업별 투자 규모는 향후 5년간 약 1000억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학생들은 광주에서 서울대 수준의 반도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업 연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지역대학들도 그동안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전남대는 에너지신산업과 반도체 첨단 패키징, 미래모빌리티 등을 중심으로 한 '가칭' 첨단산업융합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부터 연구개발까지 참여하는 산학 밀착형 교육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GIST는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기술 사업화와 디테크 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선대는 내년부터 광기술공학과를 반도체공학과로 개편해 반도체 특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동신대도 2028년 개학을 목표로 반도체 융합학부(가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단순한 설계 인력 확보를 넘어 팹(Fab) 건설과 클린룸 시공, 장비 운영·유지보수, 전력설비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책임질 현장 실무 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선제적인 인력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채용예정자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 지역 대학들이 삼위일체가 전문인력 확보에 나설 정도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의 키 포인트라는 얘기가

'배재고 응원 논란' 역사교육 강화 계기되길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체육계를 넘어 정치권 공방에 이어 시민단체 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회 청통기 전국고교 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배재고 야구선수들이 상대팀인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구호를 반복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구호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조롱성 발언으로 해석되며 지역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학교 측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하단에 구글 생성형 AI 유티마크가 발견되면서 'AI 사과문'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후 각계각층으로 빠르게 퍼져갔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에 긴급 장학지도도를 실시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야구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볼콰야구?'도 배재고 편 방송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야구협회 징계를 둘러싼 "필요한 교육 처벌" vs "과도한 낙인"이라는 갑론을박이 펼쳐졌고 여기에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가세했다. 그리고 보수단체의 야구협회 임원들에 대한 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한 학교 야구부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과거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써왔던 지역 비하와 역사 조롱 표현이 이제는 SNS와 유튜브, 게임 채팅을 타고 10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웃기다', '세다'는 이유로 따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는 이들을 관용으로 품기로 했다. 광주제일고가 6일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는 이들의 공식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잘한 일이다. 이들은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하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일탈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른들의 책임이 큰 만큼,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전국 모든 학생, 특히 선수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  |  |  |                                  |          |
|--|--|--|----------------------------------|----------|
| 회장 양진석   |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 사장 편집인 이승배   | 주필 김상훈                           | 편집국장 최현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br>우편번호 61234<br>대표전화 (062) 370-7000<br>팩스 (062) 385-5400 | 정치부 370-7040<br>경제부 370-7020<br>산업부 370-7010<br>사회부 370-7030<br>문화체육부 370-7234 | 논설실 370-7200<br>임원실 370-7000<br>총무국 370-7093<br>사입국 370-7090<br>광고국 370-7070 | 독자관리국 370-7080<br>서울지사 ☎978-7090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